

# “돈 없어 백신 개발 못한다는 말 안 나오게...모든 지원할 것”

## 尹 “과거 박정희 헬멧쓰고 공장 시찰...난 연구소로 갈 것” “기업인 규제 완화 요구 적극 검토...불편 없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기술 현황을 확인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백신 개발 못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회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었던 작년 8월에도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작년 가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백신이 빨리 개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렸다”며 “정말 1년도 안되어서 이런 밝은 소식을 접하게 돼 우리 최태원(SK대표이사) 회장님 또 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님 그리고 연구 개발진의 노고에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

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팬데믹(Pandemic)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연구·개발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는 적극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하는 분들께서 ‘이러이러한 규제는 우리가 연구·개발하고 사업을 하는 데, 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많다.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적극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현장을 직접 둘러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대통령들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현장 다니는 걸,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늘 이렇게 헬멧을 쓰고 중화학 공업을 상징하는 대형 공장들을 건설 현장들을 많이 다녔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앞으로 연구소를 많이 다녀

야할 것 같다. 여기에 우리 성장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며 “이 연구실에서 엄청난 국가 잠재력과 우리 국민들 먹거리와 우리나라의 경제·보건·안보가 여기에 다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5년에 한 번 꼴로 팬데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신종 바이러스는) 국가의 중요 리스크로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 산업은 미래 먹거리”라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항상 백신(개발을 위한) 예산이 올라왔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역량이 없었다. 위탁생산은 하지만 개발은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새 정부에서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나라를 백신 개발의 역량을 가진 백신 주권 국가로 만드는 게 중요한 새 정부의 목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인수위 보고서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의 안전성과 생산성인데, 통상 10년은 걸리는 백신 개발의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안전성과 생산성을 사수하기 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 어려움이 컸다”면서 “어렵게 축적된 백신 개발의 역량을 국가가 지속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임상3상 성공에 대해) 경이로운 결과에 축하드린다”며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의 폭 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전문가 조언을 들어 마련하겠다”며 “적어도 ‘돈이 없어서 개발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개발역량 노력에 대한 개발자들의 당부 또한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 장제원 “尹당선인, ‘검수완박=부패완판’ 생각 변함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과 관련해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법안 통과는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검찰총장 사퇴 당시와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당선인의 반대 의사를 재확인시켰다.

장제원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국

### “이준석-권성동 국민 우려 받들어 해결하리라 믿어”

민들이 우려하는 걸 잘 받들어 잘 해결해 나갈 거라 믿는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바는 없다”면서도 “에당초 검찰총장 사퇴할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 어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대변인이 전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100석밖에 안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또 우려를 잘 받들어 해결해 나갈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선인과 권 원내대표, 이 대표 간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특별히 그 문제로 교감은 안한 걸로 알고 있다. 당에서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검수완박에 관한 의견교환 여부에 대해선 “제가 알기

문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고 그렇게 크게 연락을 한 거는 없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한 후보자에 전화를 한 거지 않나”라고 했다.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가정법 아닌가. 좀 지켜봐야죠”라며 답변에 신중을 기했다.

또 권 원내대표가 증재안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의 법안을 윤 당선인에 보고했다는 질문에는 “그 문구 하나하나를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 직제 개편과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선 “금명간”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굉장히 슬립화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한분 한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적재적소에 들어가야하고 유능해야 되고 그래서 인선 작업을 좀더 꼼꼼하고 면밀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 김남국, 이재명 6월 등판론에 “전혀 없다”

### “선거에 에너지 다 소진...지금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6월 조기 등판론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언론에 나올 때 마다 정치적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다 아시겠지만 선거(대선) 치르는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다”며 “실제 어떤 청사진을 그리거나 계획을 세우는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대선후보는 하루에 3, 4개 정도 일정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거의 비공개까지 16, 17개 정도의 일정을 다녔다”면서 “지금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메시지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책 읽고, 조용히 보내고 있다. 아직 정치적 고민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국민들이나 당에서 어떤 역할을 요청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어떤 정치적 일정이나 계획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신의와 그다음에 본인이 받은 어떤 국민들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